

음악으로 만나는 '여왕의 기쁨'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음악으로 만나는 여왕은 어떤 모습일까?’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오후 7시 30분) 이틀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375회 정기연주회 ‘Queen’을 선보인다. 여왕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번 공연은 ‘시바 여왕(헨델)’부터 ‘그리스의 미인(베토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으로 클래식 ‘퀸’이 된 최하영의 하이든 악곡 등 여왕을 매개로 클래식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시바 여왕의 도둑’이 막을 연다. 기원전 1000년경 아라비아의 고대 왕국의 ‘시바’ 여왕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러 향한다. 솔로몬을 마주하게 되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보화를 싣고 예루살렘을 찾았던 당시 시바의 도착을 환영하는 전주곡인데, 쾌청한 분위기로 인해 오늘날 유럽 결혼식에서도 자주 연주된다.

두 대의 오보에와 현악기의 선율이 여왕의 장중한 걸음걸이를 연상케 하는 멜로디라인을 갖는 곡이다. 과거 솔로몬을 고행에 들게 했던 이력 때문인지 악곡에 맴도는 만만치 않은 여왕의 성미는 관

광주시향 ‘Queen’ 31일~9월1일
 광주예술의전당서 정기연주회
 콩쿨 우승 최하영 하이든 악곡 등
 여왕 매개 클래식 무대 선보여

객들의 기대를 끈다.
 첼리스트 최하영은 여왕의 품위를 보여준다. 지난해 세계 3대 콩쿠르로 손꼽히는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 당시 선보였던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를 연주할 예정. 빠른 템포지만 자신감 있는 표정과 협연 실력, 황금빛 드레스 등이 눈길을 끌었던 곡이다. 특히 첼로 부분 우승은 한국인 최초. 최하영은 앞서 2018년 폴란드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국제첼로콩쿠르에서도 우승한 바 있다.

하이든의 초기 협주곡을 대표하는 이 작품은 첼로의 리드와 협주자 간의 화음이 돋보이는 곡이다. 이날 클리산도(재즈, 관악 등의 음 미끄러짐)

없이 현이 만들어내는 깔끔한 탄주를 들을 수 있을지 관객들의 기대가 모인다.
 ‘베토벤 교향곡 4번’의 선율이 대미를 장식한다. 교향곡 3번 ‘영웅’의 강인한 힘과 교향곡 5번 ‘운명’의 가교 구실을 하는 곡으로, 유럽 북구음악의 서정과 감성이 전편을 장식하는 곡으로 평가받는다. 영웅과 운명 두 작품의 높은 명성으로 인해 비교적 조망받지 못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교향곡 3번 영웅에서 쟁취한 통찰과 내적 거리를 돌 필요성에서 나온 작품’(파울 베이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만은 ‘두 북구 거인 사이에 낀 그리스도의 미인’이라고 언급할 만큼 시대를 막론하고 눈길을 끄는 곡이다.

한편 지휘는 홍석원이 맡는다. 서울대 작곡가 지휘전공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베를린 국립음대 지휘과 디플롬 과정,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한국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오페라극장에서 수석카펠마이스터(관현악 지휘자)를 역임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티켓링크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마음 밭에 자라는 ‘꽃’

김정원 시인 8번째 시집 ‘아심찬하게’ 발간



대기 놓고/ 1자도 모르지만 / 파종 시기를 놓쳐서/ 농사를 망친 적 없는// 아주 어릴 때부터/ 흙과 하늘의 동무들이다”
 위 시 ‘질레꽃’은 꽃을 통해 농사의 현장을 묘사한다. 화자는 농부는 흙과 하늘과 동무들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유에는 농심으로 대변되는 생명의 경외와 삶에 대한 애착이 드러워져 있다. 나아가 동학의 인내천 내지는 ‘농심은 천심’ 같은 깊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김규성 시인은 해설에서 “그는 대개의 지식인들이 철학, 예술, 문학, 문화 등 인문학 전반에 걸쳐 서구 편향적 경향을 보이는 기류 속에서도 의연히 자신의 정신적 뿌리를 견고히 다진다”며 “여기에서 새삼 그 근원에 대한 애착과 긍지, 신앙적 소신을 되짚게 된다”고 평한다.

한편 김정원 시인은 전남대 대학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시집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핀다’, ‘졸락’, ‘거룩한 바보’, ‘현대’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공예 레지던시’ 인니 파견 작가 공모

ACC, 23일까지

공예 전문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공예 레지던시 파견 작가를 모집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진행되는 ‘2023 아시아 공예 레지던시 프로그램’ 파견 작가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아시아 공예 레지던시는 올해 처음 시작한 ACC 국제교류사업으로 공예 전문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작가는 인도네시아 카르타에서 전통 기

반 창작과정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전통 공예 공동연수(워크숍) 등에 참여한다. 공동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대표 전통 섬유 공예 바틱과 천연염색을 비롯해 섬유직조, 전통도에 제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비자 발급과 해외여행에 걸려 사유가 없는 19세 이상 공예 작가면 가능하다. ACC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최종 합격자 2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결과보고 공동연수는 오는 11월 초 ACC에서 펼쳐지며 파견 작가에게는 ACC재단과 함께 문화상품개발 참여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술관 운영과 미래 실천 전략

광주시립미술관, 독립큐레이터 박천남 초청 포럼

미술관의 전략을 비롯해 한국 미술계의 디렉터십 등을 다룬 포럼이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독립큐레이터 박천남을 초청해 미술관포럼을 오는 23일(오후 3시) 개최한다. ‘미술관과 종다양성’을 주제로 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2023 미술관포럼 여섯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이번 포럼에서 박 큐레이터는 미술관의 운영개념과 미래 실천 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한국 공립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것과 지양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여기에는 미술관 업무에서 큐레이터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와 전문가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부분이 연계돼 있다.

포럼 발표에 이어 미술관 연구사, 문화예술기획자 등이 참여해 자유로운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 큐레이터는 홍익대 예술학과와 동대학원 예



술학과를 졸업했으며 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현 리움)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로댕갤러리 큐레이터(전 플라토),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2023한강조각프로젝트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지난 32년 동안 국내외의 150여회의 미술관 대형 기획전을 기획, 총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日 미스터리·스릴러 영화 정수를 보다

25~26일 광주독립영화관서 4편 상영...비평가 초청 씨네토크도

일본 미스터리·스릴러 영화의 정수를 느끼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시네마클래스 ‘한여름밤의 미스터리 스릴러 극장’을 오는 25~26일 이틀에 걸쳐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유어(1997)’, 히가시노 게이고의 원작을 츠즈미 유키히코 감독이 영화화한 ‘언어가 잠든 집(2018)’, 나카타 히데오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

을 뿔인데(2018)’ 및 가타야마 신조의 ‘실종(2018)’ 총 네 편의 일본 미스터리·스릴러 장르로 구성된다. ‘실종’ 상영 후에는 ‘씨네 21’, ‘한겨레’ 등에서 기자로 일하고 대중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봉석 비평가가 ‘일본 미스터리 매력-미스터리 강국이 된 이유’라는 주제로 씨네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람료 8000원. 자세한 내용은 광주독립영화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